



4면

전북교육박물관 건립 힘모은다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음 10월 10일) 제3132호

대표전화 (063)288-9700



2일 LA 한인상공회의소 임원진이 전북을 방문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장진혁 회장 등 참석자들과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 미국 기업의 전북 투자, 국제행사의 전북 유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전북 생산품 수출·투자 확대 내실화

LA한인상의, 경제교류협약 후 방안 논의 위해 전북도 찾아 김관영 도지사, "전북발전 위한 파트너십 발휘해 나갈 것"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장진혁)가 전북을 방문해 경제교류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과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일했다.

전북도와 LA한인상의는 지난 9월 25일, 미국 LA 현지에서 전북 생산품의 수출 및 전북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경제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LA한인상의의 방문은 체결된 협약의 내실 있는 추진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다지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장진혁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을 접견하고,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 미국 기업의 전북 투자, 국제행사의 전북 유치 등을 위한 소통 채널의 확대를 주문하는 등 상호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나눴다.

김 지사는 'LA 한인상공회의소와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며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찾아나서면서 양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전북산 농특산물 등에 대한 대미 수출 확대와 전북에 대한 투자 유치, 국제행사 유치 등을 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한인상공회의소는 1971년에 설립됐으며, LA를 대표하는 한인 단체 중 하나로 LA 및 미 전역의 한인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인 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 생산품의 대미 수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 '전북 몫' 국비 확보 총력 대응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따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전북 지역구·연고 의원들 찾아 현안 반영 요청

본격적인 국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내년도 '전북 몫'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5~28일 연이은 정치권과의 예산정책협의회와 김관영 도지사의 국회 방문활동에 이어 2일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의 국회 활동이 이어졌다.

이날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강민도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정읍출신)·한준호 의원(전주출신)·김한정 의원(정읍출신)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찾아 소관 상임위별 도청 주요 핵심사업이 2023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지역 국회의원이자 예산안 등 조정소위 위원으로 확정된 한병도 의원과 이용호 의원을 만나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상임위 증액 의결에 대한 방어와 과소·미반영 부정적 사업의 예결위 단계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핵심사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2-1단계) 조성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군산2



2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을 찾은 조봉업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가 김한정 의원에 전북 산업경제분야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읍출신으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2단계 증설)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또 국회 예결위원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정운천 의원과 정읍출신으로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에게는 수소상용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북과 충남의 연계 협력 사업인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비롯 △산단용 자율주행 스캐이트 플랫폼 구축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업경제분야 핵심사업 4건의 예산 반영 지원을 역설했다.

정읍 출신으로 국회 예결위·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오경 의원의 면담에서는 무주 태권도원 내 건

립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백제 금마져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등 문화관광분야 4개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전주 출신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한준호 의원에게는 새만금개발 및 지역 사회간접비용(SOC)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지난달 2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비롯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등 4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북도는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에 대응해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한 지휘부의 지속적 국회 방문·설득 활동과 함께 국회 상주반을 중심으로 심의 진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시군 및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 주세요.

## 백제 왕도 위상 '재확인'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국보' 승격 예고

세계유산 도시 익산에 또 하나의 국보 탄생이 예고되면서 백제 왕도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 이미 국보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오층석탑 등에 이어 사리장엄구까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백제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2일 시는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가 보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국보 지정이 예고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서탑 삼주석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이후 13여년만이다.

사리장엄구는 사리를 불타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용기나 함께 봉안되는 공양물이다.

이 유물은 금제 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금제 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 6점을 포함해 총 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리장엄구는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는 한편 동아시아 사리 공예품의 대외 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됐다.

사리장엄구는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 수렴 과정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보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시는 이번 국보 승격을 '역사문화 관광도시' 브랜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